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2019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정 윤 정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강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정 윤 정

정 윤 정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8월 22일



위원장 철학박사 주동범 (인)

위원 교육학 박사 천성문 (인)

위원 교육학 박사 강승화 (인)

# 목 차

ABSTRACT .....	iv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6
3. 용어의 정의 .....	6
4. 연구의 제한점 .....	8
<b>II. 이론적 배경</b> .....	9
1. 여성의 진로지향성 .....	9
2. 사회적지지 .....	15
3. 진로장벽 .....	21
<b>III. 연구방법</b> .....	29
1. 연구대상 .....	29
2. 측정도구 .....	33
3. 자료분석 .....	36

IV. 연구결과 .....	37
1.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지향성의 기술통계량 .....	37
2.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지향성의 관계 .....	40
3.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	44
V. 논의 .....	49
1. 논의 .....	49
VI. 결론 및 제언 .....	55
1. 결론 .....	55
2. 제언 .....	57
참고문헌 .....	59
부    록 .....	75

## 표 목 차

<표 3-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	30
<표 3-2> 연구대상자의 재학중인학교형태·학년 교차 분석표 ..	31
<표 3-3> 진로지향성의 문항 및 신뢰도 검증 결과 .....	33
<표 3-4> 사회적 지지의 문항 및 신뢰도 검증 결과 .....	34
<표 3-5> 진로장벽의 문항 및 신뢰도 검증 결과 .....	35
<표 4-1> 진로지향성의 기술통계량 .....	37
<표 4-2> 사회적 지지의 기술통계량 .....	38
<표 4-3> 진로장벽의 기술통계량 .....	39
<표 4-4> 주요 변인의 상관 .....	42
<표 4-5>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44
<표 4-6>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창의·독자성지향에 미치는 영향 .....	45
<표 4-7>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가정조화지향에 미치는 영향 .....	45
<표 4-8>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전문성지향에 미치는 영향	46
<표 4-9>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직업중심자아실현지향에 미치는 영향 .....	46
<표 4-10>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안정성지향에 미치는 영향	47
<표 4-11>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경제성지향에 미치는 영향	47

# **The Influence of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on Career Orientation.**

Yun Jeong Jeong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n the course of female career development, college students are crucial to establish their own identity for their career and prepare for specific employment. But, Career guidance is needed due to career development with complex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life cycle. In this career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hat kind of variables influence the characteristics of continuing development of one's own career to determine the cou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on career orien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emale college students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located in Busan, regardless of grade or department. A total of 446 students(245 for universities, 201 for colleges) were analyzed from 9 universit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3.0 program. Frequency analysis to know general charactersistics and Cronbach's alpha was used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of the 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on career orientation.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s, and career orientation?. Second, how do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affect career orien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s, and career orient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factors were correlated. B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areer barriers and the career - orientation sub-factors showed a little significant correlation. Second, the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 variable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orientation. However, when the sub-factor of career orientation was analyzed as subordinate variable,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was different according to sub-factors.

keyword : female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 career orientation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의 진로발달 과정에 있어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구체적인 취업준비까지 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로 알려져 있다(최진영, 이광호, 2012).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학업으로 인하여 중고교시기에 진로에 대한 탐색과 고민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에 따라 대학 시기에 진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지만 많은 대학생은 대학 시기에 진로의 고민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구직현상 중 하나인 '졸업유예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으며(조덕성, 2014), 최근 대학생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졸업 이후의 진로라고 알려져 있다(이은교, 2016).

이렇게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속에서 성별에 따른 취업률의 차이로 여자대학생들은 더 많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민세진, 2016). 또한, 이미 어린 나이부터 미래의 결혼 및 육아에 수반되는 책임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덜 유망하고 임금이 낮은 진로를 선택하기도 하며(O'Brien, Friedman, Tipton, & Linn, 2000), 여자대학생들은 좀 더 제한된 범위에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향(김병숙, 2012; Fitzgerald & Betz, 1994; Poole & Clooney, 1985)을 가지고 있

다. 이에 여자대학생은 남성과 달리 여성의 복잡한 특성을 지닌 진로 발달에(최윤정, 김계현, 2009) 맞는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한편,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데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계속해서 발달시켜 나가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양희, 유성경, 임지숙, 2011). 이러한 진로 특성을 진로지향성(career orientation)이라 하며, 이는 개인의 진로선택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애 역할을 고려한 진로에 대한 동기와 욕구, 태도와 가치 등에 따른 자기개념’(이수분, 2013)을 말한다. 이렇게 여성의 진로를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난 여성의 진로지향성의 개념은 Hoyt와 Kennedy(1958)의 연구에서 최초로 언급이 되었으며, ‘스트롱의 직업흥미검사-여성용(the Strong Vocational Interest Blank-Women, SVIB-W)’(Strong, 1933)검사에서 가정지향적인 여성과 진로지향적인 여성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여성의 교육기회와 더불어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구분이 여성의 진로선택 특성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으며(Betz & Fitzgerald, 1987; Hill, 1998), 그에 따라 점차 진로지향성의 개념도 변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진로 개념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일차적 역할을 어떤 역할로 지니냐에 따라 진로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역할지향성에 대한 개념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김선희, 2006, 2010; 김언희, 2012; 안윤정, 2014). 그러나 ‘역할지향성’ 척도를 활용한 김선희(2006)는 여성의 진로지향성을 가정지향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이분법적 차원으로 여성의 진로지향성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한계가 있다(이수분, 2013). 이후 여성의 진로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여성의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에 의미 있는 개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수분(2013)의 ‘기혼여성의 진로지향성’ 척도가 개발되어 연구되었다(이수분, 2013; 정민화, 2014). 이 진로지향성 척도는 직업적 진로를 추구하는 정도와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이수분, 2013).

이에 본 연구는 진로지향성 척도를 활용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보고자 한다. 다중역할에 대한 연구가 여성의 발달시기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처럼(김양희, 유성경, 임지숙, 2011), 여자대학생의 진로지향성이 진로발달, 진로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과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향성 연구들의 결과, 진로지향성은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김양희, 유성경, 임지숙, 2011; 김완석, 이선이, 김선희, 2004),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행동 변인(김선희, 2006; 김양희, 유성경, 임지숙, 2011; 김은희, 2010; 이수분, 2016), 부모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변인(김완석, 이선이, 김선희, 2004; 김은희, 2010; 정민화, 2015)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관련 변인 중에서 특히 사회적 변인의 하나인 사회적 지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진로발달의 성차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 행동에보다 더 민감하며(Booth, Rubin & Rose-Krasnor, 1998), 여자대학생은 관계안에서의 지지와 인정을 통해 진로정체감 및 자기에 대한 이해를 구성한다(Gilligan, 1982)는 연구처럼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과 둘째, 여자대학생은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이 여유롭지 않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기보다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정민화, 2015)는 것처럼 경제적 지지도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일본 여자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들의 진로지향성은 자신의 엄마가 일을 통해 보상을 얻는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강하게 나온 것으로 결과처럼(Matui, Tazuki & Onglacto, 1999) 경험적 지지도도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진로지향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만큼이나 진로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진로장벽을 고려할 수 있다. 진로장벽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맥락적인 변인으로 고려되므로(공윤정, 2005), 남성과 여성 모두 진로장벽을 경험(손은령, 2001)할 수 있지만, 특히 여성은 자녀 양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대부분 맡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 배우자, 직업인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남성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한다(O'Brien & Fassinger, 1993). 특히 여자대학생들은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결혼과 관련하여 진로문제들을 다뤄야 한다(김창대, 1999; 임선희, 1996).

이러한 진로장벽의 변인은 손은령(2001)이 제시한 여자대학생의 진로장벽 척도가 개발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여자대학생과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들은 진로준비행동(강정은, 2008; 박숙경, 2013; 정효경, 2009)과 진로결정수준(강정은, 2008; 박미경, 2009; 손희경, 2010; 은지영, 2015; 이성식, 2007; 정홍원, 2002), 진로결정자기효능감(박숙경, 2013; 한희민, 2014) 등 개인 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로 이

루어져 있다. 또한, 기존 연구 중에서 진로지향성과 유사한 변인으로 진로장벽과의 관계를 시사하는 연구들(김은희, 2010; 우영지, 2007)을 살펴보면, 진로역할지향성과 다중역할계획태도의 변인으로 진로장벽과의 관계를 본 연구들로 현실적인 고려수준이 낮거나 일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의 병행에 대하여 무관심할 경우 장벽의 지각이 낮아질 수 있음을(우영지, 2007) 보고하였다. 또한, 진로역할지향성의 유형에 따라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은희, 2010). 즉, 어떤 역할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진로장벽을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은 진로지향성과의 영향이 있음을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여자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지향성 관련 연구들을 보면,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지지에 한정되어 연구되어 있으며(정민화, 2015), 여자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지향성에 관련한 연구의 수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진로장벽의 지각과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여러 진로 변인들과 진로장벽 지각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손은령(2001)의 제언처럼,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진로지향성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은 진로지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진로지도로 그치는 수준이 아닌 장기적인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

할 수 있게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지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은 진로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진로지향성

진로지향성(career oriented)이란 자신의 생애역할을 고려한 진로에 대한 동기와 욕구, 태도와 가치에 대한 자기개념을 의미한다(이수분, 2013).

본 연구에서 진로지향성은 이수분(2013)의 진로지향성 척도에서 나타난 점수를 의미한다.

#### 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되거나 얻을 수 있는 다차원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House, 1981).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김연수(1995)의 사회적 지지 척도에서 나타난 점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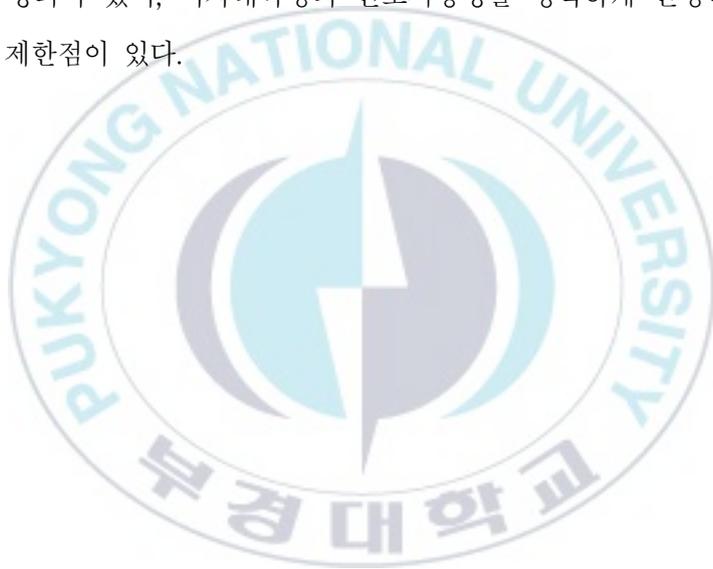
#### 다. 진로장벽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란 진로와 관련된 여러경험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행동에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 사건이나 상황 등을 통칭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은 손은령(2001)의 진로장벽 척도에서 나타난 점수를 의미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진로지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자대학생에게 맞는 진로지향성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이수분(2013)이 개발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여자대학생에게 맞지 않는 설문이 구성되어 있어, 여자대학생의 진로지향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의 진로지향성

#### 가. 진로지향성의 개념

여성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직업적 역할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결혼과 육아 등 가정적 역할이 주된 생애역할로 중요하게 언급되어왔다(Hill, 1998).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과거 전통적인 역할을 더 추구하는 모습과는 달리 사회 속에서 직업적 역할을 하는 여성으로서 역할의 확장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적 역할들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에 대한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에 대한 진로 관련 초기 연구 주제들은 주로 ‘결혼과 자녀 양육에 강한 동기를 가진 여성과 자신의 진로개발을 더 강하게 추구하는 여성들에 대한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이수분, 2013).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성을 가정지향(homemaking-oriented)과 진로지향(career oriented)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Almquist & Angrist, 1970). 이러한 여성의 진로지향성에 대한 개념은 Hoyt와 Kennedy(1958)의 연구에서 최초로 언급이 되어 ‘스트롱의 직업흥미검사-여성용(the Strong Vocational Interest

Blank-Women, SVIB-W)'(Strong, 1933)을 통해 가정지향적인 여성과 진로지향적인 여성으로 분류하였다. 검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지향적인 여성들은 가정과 같이 전통적인 여성과 관련된 역할에 중요도를 높게 두었으며, 진로지향적인 여성들은 여성보다는 남성우위적인 것과 관련된 역할에 중요도를 높게 두었다. 즉 진로지향적인 여성은 어머니 역할(marital role)보다는 진로 역할(career role)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Betz & Fitzgerald, 1987).

또한, 진로지향과 가정지향은 역할 뿐만 아니라 직업적 흥미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여성성이 높은 직종들에 대해서는 가정지향적인 여성들의 흥미가 높게 나타나고, 진로지향적인 여성들은 모든 직업적 흥미가 높게 나타났다(Betz & Fitzgerald, 1987). Tinsley와 Faunce(1978, 1980)는 진로지향을 보이는 여자대학생과 가정지향을 보이는 여자대학생 사이에 적성, 직업 흥미와 욕구,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가족의 지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김완석, 이선이, 김선희, 2004).

Hoyt와 Kennedy(1958)의 연구 이후 진행된 후속 연구들 역시 여성들을 가정지향성과 진로지향성으로 구분하였고, 이들의 성취동기에 따른 차이(Walsh & Osipow, 1994; Oliver, 1974; Bardwick, 1971; Rand, 1968; Tyler, 1964), 능력에 따른 차이(Rand, 1968), 가치에 따른 차이(Goldsen, Rosenberg, Williams, & Suchman, 1960) 등의 연구들을 통해 가정지향적인 여성과 진로지향적인 여성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이수분, 2013). 이와 유사하게 Amatea, Cross, Clark와 Bobby(1986)은 여성의 역할에 부여하는 개인의 중요도나 가치를 측정하여 여성의 진

로지향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Hoyt와 Kennedy(1958)가 구분하는 가정 지향, 진로지향과 달리 배우자역할 중요도, 부모역할 중요도, 가족경영 역할 중요도, 직업역할 중요도로 나누어서 개인의 생애역할을 어떤 역할로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의 연구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전통적인 여성의 특성에서 벗어난 진로지향 여성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Betz & Fitzgerald, 1987).

#### 나. 진로지향성의 발달

그러나 점차 변화되는 사회에 따라 여성들은 사회진출이 활발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가정지향과 진로지향이 동시에 공존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여성을 가정지향과 진로지향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여성의 진로선택 특성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Betz & Fitzgerald, 1987; Hill, 1998). Eyde(1962)는 진로지향성을 ‘가정주부의 역할 수행과 관련 없이 선호하는 일에 대한 관여 정도’라고 정의하였다(Betz & Fitzgerald, 1987에서 재인용). Almqvist와 Angrist(1970)는 진로지향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진로현저성을 ‘경제적인 요구와 상관없이 성인의 삶의 일부로서 일에 대한 열망’으로 정의하였으며, Masih(1967)는 진로현저성을 진로에 동기화된 정도, 직업이 만족에 중요한 정도, 만족을 진로에 귀인하는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다. 또한, Mashall과 Wijting(1980)은 진로지향성의 요인을 진로중심성, 진로몰입으로 정의하였으며, 진로중심성은 진로 활동을

우선시하는 삶의 스타일을 나타내고, 진로몰입은 의무감, 경제적 필요와는 상관없이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삶의 스타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후 Quimby(2002)는 진로지향성을 자신의 직업적 흥미를 추구하는 개인적 공간으로서의 직업의 중요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구성요소는 진로포부, 진로현저성, 진로몰입으로 정의하였다. 진로포부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 내에서 리더십과 승진에 대한 열망정도이며(Dukstein & O'Brien, 1994; Nauta et al., 1998; O'Brien, 1996; O'Brien & Fassinger, 1993; Quimby, 2002에서 재인용). 진로현저성은 Almquist와 Angrist(1970)과 같으며, 진로몰입은 Mashall과 Wijing(1980)의 정의와 유사하게 정의하였다.

이처럼 여성의 진로지향성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 연구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진로를 지향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여성의 진로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진로지향성이 높은 여성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자아존중감, 자기수용과 자신감 등의 심리적 변인(Ridgeway & Jacobsen, 1979)과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지지와 격려(Altman & Grossman, 1977; Hill, 1998)와 같은 환경적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성역할 정체감(Wolfe & Betz, 1981)과 성역할 태도(Stafford, 1984; Hill, 1998)의 변인들도 여성의 진로지향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완석, 이선이, 김선희, 2004; 이수분, 2013). 그러나 이렇게 여성의 진로지향성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여성들의 특성을 다양하게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Schein(1974, 1978)과 Delong(1982)은 진로지향성을 개인이 자신의 직업 생활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특성의 자아개념이라고 보았다(허봉렬, 1995). 기존 여성의 진로지향성 개념과 달리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요구와 동기, 가치 및 태도 등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진로지향성을 개념화하였다(정민화, 2014). Schein(1974)은 경력 닻(career anchor)개념을 제시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진로지향성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는 진로지향성의 초기 연구에서는 기술적/ 기능적 능력(technical/functional competence), 관리적 능력(managerial competence), 안정과 안정(security and stability), 자율과 독립(autonomy), 사업가적 창의성(entrepreneurial creativity)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진로 닻 개념 이후 Delong(1982)의 연구에서 더 발전되어 Schein의 진로 닻 개념의 구성요소 중 ‘개인이 지각하는 재능과 역량’을 제외하고 ‘자신의 동기와 욕구, 진로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만을 진로지향성 개념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Schein의 5가지 진로 닻 유형에 추가로 정체성/소속감(identity) 지향, 서비스(service) 지향, 다양성(variety) 지향 3가지를 추가하여 총 8유형의 진로지향성을 제안하였다.

Schein(1974, 1978)과 Delong(1982)의 진로지향성 개념은 기존 앞에서 본 여성 진로지향성 개념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개념이다. 앞서 본 진로지향성 개념은 기존 여성 개인의 진로지향 수준 혹은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라면, Schein(1974, 1978)과 Delong(1982)의 진로지향성 개념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된 것으로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욕구와 동기, 가치 및 태도 등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진로지향성을 개념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연구에서 이수분

(2013)은 다양한 현대 여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성의 진로지향성의 Mashall & Wijting(1980)과 Quimby(2002)의 개념과 Schein(1974, 1978)과 Delong(1982)의 개념을 융합하여, 진로지향성 개념을 ‘자신의 생애역할을 고려한 진로에 대한 동기와 욕구, 태도와 가치에 대한 자기개념’으로 정의하였다.

#### 다. 여자대학생과 진로지향성

진로지향성에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보편적으로 많이 존재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국내의 연구에서도 진로지향성이라고 한 연구들은 미비하고 최근에서야 기혼여성으로 연구가 시작되고 있어 여자대학생에 관련한 연구들은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김선희(2006)의 역할지향성과 타협상황에 따른 여성의 진로선택의 연구처럼 여자대학생은 어떤 역할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정민화(2014)는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에 따라 진로지향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지향성에 상관이 있으며, 특히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경험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김양희, 유성경, 임지숙(2011)의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들의 진로지향성이 다중역할계획태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여자대학생의 진로발달, 진로선택에 영향력을 미치

는 변인 진로지향성을 통해 여자대학생의 진로를 다양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이수분(2013)이 개발한 ‘진로지향성’척도를 여자대학생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 2. 사회적 지지

### 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진로발달에서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함이 밝혀지고 있다(Dubois, Felner, Meares, & Krier, 1994; Levitt, Guacci-Franco, & Levitt, 1994).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에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Betz, 1989).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기능적 특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의 다차원적 기능을 반영한다(Dong & Simon, 2010). 즉, 사회적 지지란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거나 얻을 수 있는 다차원의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지은, 2013)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이란,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구조적 특성과 달리 사회적 지지를 다른 사람과의 신뢰 관계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 보는 것이다(정지은, 2013).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기존 연구들의 하위요인 분류를 살펴보면, 4개의 요인으

로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 평가적 지지(appraisal support)로 분류하였다(House, 1981). 정서적 지지는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것이며, 도구적 지지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고, 평가적 지지는 개인의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박지원, 1985). 이에 따라 국내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사회적 지지 척도를 개발하면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별하여 정의하였다.

#### 나. 사회적 지지의 발달

한편, Wethington과 Kessler(1986)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실제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와의 차이를 설명하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제공받는 지지에 비하여 행동을 예언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보다는 개인에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며,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는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각하지 않는 경우는 사회적 지지의 가치가 없다고 설명하였다(정지은, 2013). 이외에도 개인에서 지각된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때(송중용, 1988; Cohen & Willis, 1985; Heller & Swindle, 1983; Henderson, 1984),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가치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고 볼 수 있다.

이원숙(1992)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기능적 특성으로 접근하는 측정 있어서 구분해야 할 측면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지적 행동 유형의 개념에 기반을 두어, 사회적 지지를 다차원적 자기 기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지는 측면이다. 이는 단일기능과 다차원적 기능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기존의 단일 차원의 접근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지지 척도를 개별적 구성요소로 볼 것인가와 전체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로, 최근 사회적 지지를 전체적으로 접근하되, 다차원적 기능의 개별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외에 각 지지기능의 지수를 산출하여, 사회적 지지의 전체효과뿐만 아니라 각 지지기능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Krause, 1986; Russell & Cutrona, 1990). 마지막은 사회적 지지에 이용 가능한 지지와 실제로 제공받은 지지 중 어느 것을 측정하는 것인가이다. 그러나 개인이 실제로 제공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은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가 개인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그 지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회적 지지의 가치가 없다는 여러 주장을 통해(송종용, 1988; Cohen & Willis, 1985; Heller & Swindle, 1983) 인식을 기반으로 한 측정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자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정지은(2013)은 사회적 지지 척도들은 사회

적 지지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를 토대로 개발되어 사회적 지지가 요구되는 가상적 상황에서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Cohen과 Hoberman(1983)의 대인관계 지지평가 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로,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평가·정보적 지지, 소속적 지지, 유형적 지지로 구분하여 구성되어있으며, 김정희와 이장호(1986)도 ISEL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평가적 지지, 소속 지지, 자존심 지지, 유형적 지지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된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도구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사회적 지지망, 지지형태, 지지욕구의 3차원으로 분류하여, 기능적 특성인 지지형태를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로 명명하였다. 또한, 지지형태의 차원에서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4가지의 지지행위를 포함 시켜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간접적으로 지각 지지척도(지지형태) 4가지 지지에 대한 인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이원숙, 1992), 국내의 사회적 지지 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Douglas, Suurmeijer, Briancon, Moum, Krol, Bjelle와 Heuvel(1996)의 사회적 지지 척도로 사회 정서적 지지는 사회 관련 지지(SC: social companionship), 일상 관련 정서적 지지(DES: daily emotional support), 문제 관련 정서적 지지(PES: problem oriented emotional support)로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도구적 지지는 일상 관련 도구적 지지(DIS: daily instrumental support), 문제 관련 도

구적 지지(PIS: problem oriented instrumental support)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총 5가지 하위요소로 구분된다.

#### 다. 여자대학생과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진로와 관련된 변인으로 국내외적으로 연구되어졌다. 특히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오은경(2003)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성숙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한수현(2003)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으며,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박희순(2012)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취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취업전략 수립 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다르다고 보고 하였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이상희, 2009).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는 한국사회 고유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김양희, 2012)에 따라 여자대학생에게 더욱이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김양희(2012)는 한국 여자대학생이 사회문화적 맥락 및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관계성을 중시하는 여성들이 관계가 함몰될 경우는 기존의 성 고정 관념적인 관계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김현미, 방희정, 소유경, 옥정, 김은경, 2006). 즉,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하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피할 수 없는 시기적인 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지지(Cohen & Syme, 1985; Trehame, Lyons & Tupling, 2001)가 부족할 경우 여성은 가정이나 직업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박홍주, 1998). 이러한 상황은 여자대학생이 진로를 정하는 대에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내는 선행연구이다.

또한, 정민화(2014)가 연구한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자대학생의 진로 발달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이보림(2017)의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직·간접적으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즉, 상담 시 여자대학생들의 불안과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상담 장면에서 칭찬과 격려, 정보 제공 등의 상담자의 역할에 따라 진로태도를 함양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은지(2010)의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면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여자대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함을 전제로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로지향성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박지원(1985)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김연수(1995)가 수정·보완하고, 정지은(2013)이 사용한 설문처럼 사회적 지지체계를 연구대상의 특

성에 맞게 사용하고자 한다.

### 3. 진로장벽

#### 가. 진로장벽의 개념

여성의 진로장벽은 제한된 직업기회와 고용기회, 여성 능력의 낮은 활용도, 직업과 가정에서의 역할분담들과 같은 변인들이 되고 있다 (O'Brein & Fassinger, 1993). Matthew와 Tiedeman(1964)은 여성의 진로발달에 관련된 장벽에 대해 논의한 이래(김병숙, 2010, 재인용), 진로장벽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진로장벽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계속 관심사였다. Swanson과 그의 동료들은 (Swanson, 1994; Swanson & Daniels, 1995; Swanson & Tokar, 1991a, 1991b) 진로장벽검사를 개발하고 이를 계속 개정해 나감으로써 '진로장벽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에 답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Swanson과 Daniels(1995)는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CBI-R)에서 '직업이나 진로계획 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진로장벽을 정의하였고, 진로장벽에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진 내적장벽과 환경에서 주어지는 외적장벽이 있음을 2분법 적으로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Swanson과 Woitke(1997)은 개인 내부나 환경 속에서 진로 진전을 어렵게 하는 사건이나 조건으로 진로장벽을 정의함으로써, 내적장벽과 외적장벽을 정의의 내용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였다.

여성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진로장벽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초기의 논의들은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업성취를 이루지 못하거나 낮은 성취만 이루게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Betz & Fitzgerald, 1987). Fitzgerald 등(1995)은 지각된 장벽 또는 장벽의 지각이 여성의 진로 행동에 관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험적인 연구들에서는 장벽의 구성개념 적용 가능성을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장벽을 지각하고 있다는 최근 연구들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진로장벽이라는 구성개념은 타당하고 유용한 개념으로 보여진다(McWhirter, 1997).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진로이론이 전개된 경우는 거의 없으나, 진로장벽이 진로선택과 진로실행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을 기대-유인가 모델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으로 진로장벽을 이해해 볼 수 있다. 기대-유인가 모델(Expectancy-Valence Model)에서는 기대와 유인가에 따라 개인의 행동 경향이 다르게 되며, 개인이 특정 분야에 들어가서 머무르는 것은 원하는 결과(outcome)를 얻을 수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Vroom, 196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직업선택은 직업과 관련된 장벽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rown, Eisenberg, & Sawilowsky, 1997). 예를 들어, 여자대학생이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비 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면, 직업과 가정의 책임 문제를 조화시킬 자신

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기도 하였다(Stickel & Bonett, 1991).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개인 변인들과 함께 개인을 제약하거나 지원해주는 개인 외적 요인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따르면, 진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흥미를 분석하고 자아효능감 기대와 결과 기대 등을 탐색하며, 직업적 대안들을 검토할 때, 이러한 모든 작업을 개인, 심리적인 관점에서만 실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환경 요인들이 자신의 노력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하였을 때, 직업 흥미가 진로목표로 그리고 진로 목표가 진로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Lent, Brown, & Hackett, 2000). 또한,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구분하는 것으로 여성의 진로 행동을 설명하면, 비전통적인 직업 분야에 대한 자아효능감 기대가 높은 여성의 경우, 격려의 부족이나 가정-진로 갈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기대되거나 예상되면, 그 여성은 비전통적인 직업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 결과들을 진로장벽으로 볼 수 있다(손은령, 2001). 이러한 진로이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진로장벽은 여성이 진로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진로선택 유형을 한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된다. 즉,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 정도와 지각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진로선택 및 진로 행동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나. 진로장벽의 발달

여성의 진로발달과 진로장벽에 대해 Matthew와 Tiedeman(1964)이 처음 논의를 시작한 이래로 연구자들은 여성의 진로선택이나 진로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진로장벽들을 구명하고 그 유형을 분류해보고자 시도하였다(Crites, 1969; Farmer, 1976; Harmon, 1977; Russell & Rush, 1987). 초기에는 주로 이분법적으로 진로장벽을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Swanson & Woitke, 1997), 예를 들면, Crites(1969)는 직장인들은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외적 좌절이나 내적 좌절 같은 몇 가지 ‘방해하는 조건들(Thwarting Conditions)’을 만나게 되며, 이러한 방해하는 조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만 진로 만족과 직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개인의 진로진전(Career Progress) 과정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방해조건’이라 칭하였으며, 이를 외적 좌절(작업장에서의 차별, 임금의 차별)과 내적 좌절(성취동기나 자기개념)으로 구분하였다. Crites의 틀이 처음 제시된 이후에, 다른 연구자들도 진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방해조건을 명확히 분류하고자 시도하였다(O’leary, 1974; Farmer, 1976; Harmon, 1977).

한편, 이후에 제시된 Betz(1994)와 McWhirter, Torres와 Rasheed(1998)는 이분법적 틀을 취하고는 있지만, 용어의 선택이나 관점에 있어서 이전 연구자들과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Betz(1994)는 여성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장벽으로 환경적 장벽(Environmental Barriers)과 개인적·사회화된 장벽(Personal·Socialized Barriers)으로 이분화하였다. 이는 여성에게서 내적 장벽이 순전히 선천적이거나, 개인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내적 장벽이 발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및 환경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McWhirter, Torres와 Rasheed(1998)도 여성의 진로적응에 대한 장벽을 외적·환경적 장벽과 개인적·사회화된 장벽으로 이분화하였다. 이처럼 내적 장벽은 개인 내부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는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수용되지만(Swanson & Woitke, 1997), 지나치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구분이 되며, 개인이 지각할 수 있는 진로장벽의 전체 영역을 너무 단순화하게 유목화하고 있다(Swanson & Tokar, 1991a). 삼분법적 분류는 Sobol(1963), Nieva와 Gutek(1981), Swanson과 Tokar(1991a)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Sobol(1963)는 여성의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가능조건(enabling conditions),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 가속조건(precipitating conditions)을 제시하였다. 가능조건은 여성의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의 의미하며, 촉진조건은 여성의 취업을 보다 쉽게 하는 조건을 의미하고, 가속조건은 여성의 취업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이와 같은 Sobol(1963)의 분류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Nieva와 Gutek(1981), Swanson과 Tokar(1991a)는 외적 장벽과 내적 장벽의 단순한 분류체계를 극복하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을 진로장벽의 개념에 포함을 시키기 위한 시도들을 하였다. 이에 Nieva와 Gutek(1981)는 개인특성 요인과 상황 요인 사이에 태도 요인을 추가하였고, Swanson과 Tokar(1991a)는 태도 장벽과 사회적·대인 장벽 사이에 상호작용적 장벽을 추가하였다.

위의 같이 이분법, 삼분법적인 분류체계들은 진로장벽의 내용을 인

위적인 몇 개의 틀로 구분하였지만, 이러한 작위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이나 생활 장면에서 지각되는 진로장벽을 조사하고 이를 유목화하고자 시도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원적인 분류체계를 취하였다(손은령, 2001). 다원 분류는 이론적 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경험적 자료들을 통해서 진로장벽을 도출한 것으로 대부분 오픈 문항을 통해 진로장벽의 항목을 수집하고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거나 방해되는 지각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여 진로장벽의 유목을 도출하였다(이성식, 2007).

#### 다. 여자대학생과 진로장벽

진로장벽과 관련한 국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에 있어서 남녀차이가 보임을 연구하였다(Luzzo, 1995; McWhirter, 1997; Swanson & Daniels, 1994; Swanson & Tokar, 1991a). 그중 Swanson과 동료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에 대한 남녀차이를 연구하였고, 여자대 학생이 전형적으로 높은 척도의 점수를 보였다. 이 중 대체적으로 가족 또는 차별과 관련된 장벽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Swanson & Daniels, 1994; Swanson & Tokar, 1991).

국내에서도 손은령(2001)이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검사 도구(여학생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남녀대 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차이를 연구한 선행논문에 따르면, 진로장벽 검사 점수의 평균이 여자대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은영(2001) 남녀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의 양상을 연구하였다. 전체 진로장벽에 대해서 여자대학생이 다소 높게 점수가 나왔지만 유의미한 결과치는 아니었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는 대인관계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에서 통계적으로 여자대학생이 높고,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 척도를 사용해서 연구한 김선중(2005)는 성별에 따른 전체 진로장벽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성격 문제는 여자대학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또한, 진로장벽과 함께 활발하게 연구되는 변인으로서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과 관련한 연구들이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졌다(강정은, 2008; 손은령, 2001; 이성식, 2007; 이숙정, 유지현, 2009).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장벽이 어떻게 여자대학생에 인식되는지에 따라 진로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대학생이 진로장벽을 높게 자각하게 되면 진로를 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외에도 여자대학생의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병행을 계획하는 태도와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역할과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있었으며(우영지, 2007; 정경은, 2010), 연구결과 진로장벽이 역할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부적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신의 심리 상태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여자대학생과 진로장벽 간의 관계 대한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할 때는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등의 문제를 어떻게 감수, 극복, 대처할 것인지를 상담에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였다(허보연,

2010).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척도를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손은령(2001)이 개발한 ‘진로장벽 검사도구(여학생용)’은 여자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① 차별, ②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의 부족, ③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④ 미결정 및 직업준비 부족, ⑤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⑥ 기대보다 낮은 직업진망, ⑦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구명한 바 있다(손은령, 2001). 이를 이성식(2007)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외 문항들을 수정·축약하여 ① 차별과 편견, ② 다중역할 갈등, ③ 직장생활의 능력 부족, ④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 부족, ⑤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⑥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은영(2001)은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 진로 탐색장애검사(KCBI)’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진로장벽을 ① 대인관계 어려움, ② 자기 명확성 부족, ③ 경제적 어려움, ④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⑤ 직업정보 부족, ⑥ 나이 문제, ⑦ 신체적 열등감, ⑧ 흥미 부족, ⑨ 미래 불안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려고 하였고,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있는. 손은령(2001)이 개발한 진로장벽 검사를 사용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의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학과 관계없이 조사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4년제 여자대학생만큼이나 전문대 여자대학생에게도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손강숙, 2015; 정선영, 2014)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을 분류하지 않고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부산 지역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 총 9개 대학에서 총 47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고, 회수율 98%로 461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부정확하게 응답하였거나 전문대의 특성상 연령대가 높아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15명을 제외한 446명(4년제 245명, 전문대 20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무작위로 선정한 여자대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설문을 배포하고 수거한 비율 60% 학과에 의뢰하여 배포하고 수거한 비율 40%로 구성되었다.

여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1>과 같다.

총 446명의 여자대학생들의 재학 중인 학교형태는 ‘전문대’ 인원이 201명(45.1%), ‘4년제대학’ 인원이 245명(54.9%)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182명(40.8%), ‘자연/공학계열’이 56명(12.6%),

‘경상계열’이 21명(4.7%), ‘의학계열’이 167명(37.4%), ‘예체능계열’이 20명(4.5%)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진로취업에 대한 결정에서 ‘결정’된 학생은 260명(58.3%), ‘미결정’된 학생은 186명(41.7%)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에 대한 생각에서는 ‘독신’이라 응답한 학생이 31명(7.0%), ‘하지 않는 편이 나옴’은 55명(12.3%),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은 156명(35.0%), ‘하는 편이 나옴’은 106명(23.8%), ‘반드시 할 것임’은 98명(22%)으로 나타났다.

<표 3-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	빈도(명)	백분율(%)
재학중인 학교형태		
전문대학	201	45.1
4년제대학	245	54.9
전공		
인문/사회계열	182	40.8
자연/공학계열	56	12.6
경상계열	21	4.7
의학계열	167	37.4
예체능계열	20	4.5
진로취업 결정		
결정됨	260	58.3

미결정됨	186	41.7
<hr/>		
결혼에 대한 생각		
독신임	31	7.0
하지 않는 편이 나옴	55	12.3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	156	35.0
하는 편이 나옴	106	23.8
반드시 할 것임	98	22.0
<hr/>		
전 체	446	100.0
<hr/>		

이러한 여자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분류를 학년으로만 분류하는 데는 재학 중인 학교형태에 따라 학년 기준이 다름으로 재학 중인 학교형태와 학년에 따른 분류를 같이 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한 결과는 아래 <표 3-2>과 같다. 재학 중인 학교형태는 ‘전문대’ 인원 201명(45.1%) 중에서 ‘1학년’은 168명(37.7%), ‘2학년’은 32명(7.2%), ‘3학년’은 1명(0.2%)이며, ‘4년제대학’ 인원 245명(54.9%)에서 ‘1학년’은 43명(9.6%), ‘2학년’은 93명(20.9%), ‘3학년’은 71명(15.9%), ‘4학년’은 38명(8.5%)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3-2> 연구대상자의 재학중인학교형태·학년 교차 분석표**

재학중인학교형태(명)		총계
전문대학	4년제대학	

학년			
1학년	168(37.7%)	43(9.6%)	211(47.3%)
2학년	32(7.2%)	93(20.9%)	125(28.1%)
3학년	1(0.2%)	71(15.9%)	72(16.1%)
4학년	0(0%)	38(8.5%)	38(8.5%)
전 체	201(45.1%)	245(54.9%)	446(100%)



## 2. 측정 도구

### 가. 진로지향성 검사

본 연구에서는 이수분(2013)이 개발한 진로지향성척도로서 총 24개 문항으로,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지향성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창의·독자성지향척도(4문항) .71, 가정조화지향척도(3문항) .67, 전문성지향척도(4문항) .81, 직업중심·자아실현지향척도(5문항) .83, 안정성지향척도(4문항) .80, 경제성지향척도(4문항) .75 로서 5점 척도이며,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전체 .88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다음의 <표 3-3>과 같다.

<표 3-3> 진로지향성의 문항 및 신뢰도 검증 결과

하위요인	문항수(문항번호)	Cronbach's $\alpha$
창의독자성지향	5문항 (7, 22, 23, 24)	.821
가정조화지향	3문항 (13, 18, 21)	.745
전문성지향	4문항 (8, 12, 17, 20)	.756
직업중심자아실현지향	5문항 (1, 4, 9, 14, 19)	.753
안정성지향	4문항 (2, 5, 10, 15)	.829
경제성지향	4문항 (3, 6, 11, 16)	.725
진로지향성	24	.815

## 나. 사회적 지지 검사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김연수(1995)가 수정·보완한 도구로서 총 25개 문항,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지지척도(7문항) .83, 정보적 지지척도(6문항) .82, 물질적 지지척도(6문항) .76, 평가적 지지척도(6문항) .80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전체 .97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다음의 <표 3-4>과 같다.

<표 3-4> 사회적 지지의 문항 및 신뢰도 검증 결과

하위요인	문항수(문항번호)	Cronbach's $\alpha$
정서적지지	7문항 (1, 6, 7, 10, 16, 18, 24)	.887
정보적지지	6문항 (8, 14, 17, 19, 22, 25)	.878
물질적지지	6문항 (3, 9, 13, 15, 20, 23)	.838
평가적지지	6문항 (2, 4, 5, 11, 12, 21)	.885
사회적 지지	25	.963

## 다. 진로장벽 검사

본 연구에서는 손은령(2001)이 개발한 진로장벽(여자대학생용)척도로

서 총 58개의 문항으로, 7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장벽척도의 하위요인들은 차별척도(14문항) .951,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의 부족척도(10문항) .922, 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척도(9문항) .907,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척도(8문항) .895,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척도(6문항) .812, 기대보다 낮은 직업 전망척도(5문항) .791,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척도(5문항) .840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이에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979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다음의 <표 3-5>과 같다.

<표 3-5> 진로장벽의 문항 및 신뢰도 검증 결과

하위요인	문항수(문항번호)	Cronbach's $\alpha$
차별	14문항 (15, 35, 36, 39, 40, 43, 45, 46, 47, 49, 51, 54, 55, 57)	.951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의 특성 부족	10문항 (1, 9, 17, 18, 19, 23, 29, 32, 37, 48)	.922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9문항 (2, 8, 10, 26, 21, 25, 31, 42, 53)	.907
미결정 및 직업준비부족	8문항 (6, 13, 20, 33, 38, 44, 50, 52)	.895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6문항 (3, 4, 14, 24, 27, 34)	.812
기대보다 낮은 직업 전망	5문항 (12, 22, 30, 41, 56)	.791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5문항 (5, 7, 11, 26, 28)	.840
진로장벽	57	.979

### 3. 자료분석

.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는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첫째, 여자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진로지향성 검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의 계수로 판단하였다.

셋째,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지향성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인 진로지향성,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내용은 각각 <표 4-1>, <표 4-2>, <표 4-3>에서 제시하였다.

<표 4-1> 진로지향성의 기술통계량 (N=446)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칭의독자성지향	1.0	5.0	3.20	.731
가정조화지향	1.0	5.0	3.07	.907
전문성지향	2.0	5.0	3.76	.606
직업중심 자아실현지향	1.6	5.0	3.49	.664
안정성지향	1.0	5.0	3.90	.696
경제성지향	1.0	5.0	3.37	.733
전 체	1.92	5.0	3.49	.418

분석결과,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 중 창의독자성지향, 가정조화지향, 직업중심자아실현지향, 경제성지향 등에서는 3.5점 이하(5점 척도)의 평균을 나타내었고, 전문성지향, 안정성지향 등에서는 3.5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진로지향성 전체의 평균은 3.49점(5점 척도,  $SD=.418$ )으로, 중간 정도의 진로지향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사회적 지지의 기술통계량 ( $N=446$ )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지지	2.0	5.0	4.02	.596
정보적지지	2.0	5.0	3.92	.639
물질적지지	2.0	5.0	3.89	.617
평가적지지	2.0	5.0	3.97	.581
전 체	2.0	5.0	3.95	.575

사회적 지지의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는 정서적 지지 등에서 4점 이상(5점 척도)의 평균을 나타냈었고,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에서는 4점 이하(5점 척도)의 평균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평균 3.95( $SD=.575$ )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 진로장벽의 기술통계량 (N=446)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차별	1.0	7.0	3.03	1.318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의 특성 부족	1.0	7.0	3.20	1.278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1.0	7.0	3.41	1.264
미결정 및 직업준비부족	1.0	7.0	3.35	1.305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1.0	7.0	3.40	1.136
기대보다 낮은 직업 전망	1.0	7.0	3.28	1.186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1.0	7.0	2.71	1.233
전 체	1.0	7.0	3.20	1.116

진로장벽을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서 3점 이하(7점 척도)로 나타났으며, 그 외 요인에서는 3점 이상(7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전체 평균은 3.20( $SD=1.116$ )이며, 다른 변인들에 비해 표준편차가 크게 나와 진로장벽을 느끼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 2.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지향성의 관계

본 연구의 세 가지 주요 변인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표 4-4>에서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636~.803까지 높은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 간에도 .834~.886까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에는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이 없는 요인도 나타났으며, 상관이 없는 요인들로 창의·독자성지향과 가정조화지향, 창의·독자성지향과 경제성지향, 전문성지향과 경제성지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 결과는 전문성지향과 직업중심자아실현지향은 진로장벽에 부적 상관으로 대부분 나타났으며, 경제성지향에는 진로장벽이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진로지향성 하위요인과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은 경제성지향에만 정적상관을 보이며, 창의성지향은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에만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대부분의 하위요인들은 .123~.350까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경제성지향만이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경제성지향 외의 진로지향성 하위요인들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간의  $-.362 \sim -.175$ 까지의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낮게 느낀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4> 주요 변인의 상관 (N=44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08	1																			
3	.46**	.13**	1																		
4	.36**	.25**	.30**	1																	
5	-.17**	.27**	.12**	.35**	1																
6	.00	.27**	.06	.25**	.52**	1															
7	.34**	.50**	.65**	.78**	.51**	.57**	1														
8	.02	-.01	-.15**	-.17*	-.02	.12**	-.08	1													
9	-.00	-.05	-.22**	-.08*	.03	.18**	-.06	.76**	1												
10	-.03	-.09	-.06	-.07	.04	.13**	.09	.83**	.71**	1											
11	-.01	-.07	-.13**	-.22**	-.07	.114*	-.05	.72**	.77**	.66**	1										
12	-.00	-.05	-.14**	-.10*	.03	.170**	-.00	.75**	.72**	.73**	.70**	1									
13	.05	-.02	-.10*	-.12*	-.00	.157**	-.05	.71**	.73**	.76**	.79**	.78**	1								

14	.10*	.06	-.10*	-.07	-.02	.118*	.09	.76**	.70**	.61**	.66**	.61**	.61**	1						
15	.08	-.09	-.14**	-.12**	.06	.171**	-.07	.91**	.91**	.86**	.88**	.83**	.88**	.82**	1					
16	.13**	.26**	.31**	.21**	.28**	.06	.38**	-.25**	-.39**	-.20**	-.27**	-.20**	-.20**	-.29**	-.33**	1				
17	.14**	.22**	.30**	.26**	.12**	.06	.38**	-.22**	-.33**	-.22**	-.24**	-.28**	-.25**	-.25**	-.33**	.85**	1			
18	.16**	.25**	.37**	.25**	.15**	.03	.36**	-.29**	-.30**	-.15**	-.20**	-.25**	-.27**	-.21**	-.26**	.85**	.82**	1		
19	.13**	.20**	.30**	.29**	.22**	.04	.32**	-.22**	-.32**	-.23**	-.28**	-.21**	-.28**	-.21**	-.25**	.86**	.87**	.84**	1	
20	.19**	.25**	.31**	.20**	.27**	.03	.30**	-.33**	-.37**	-.21**	-.22**	-.33**	-.25**	-.26**	-.37**	.97**	.97**	.93**	.92**	1

\*, p<.05, \*\*, p<.01, \*\*\*, p<.001. **요인명:** (진로지향성): 1. 창의·독자성지향, 2. 가정조화지향, 3. 전문성지향, 4. 직업중심자아 실현지향, 5. 안정성지향, 6. 경제성지향, 7. **진로지향성** (진로장벽): 8. 차별, 9.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의 부족, 10. 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 11. 미결정 및 직업준비 부족, 12.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13. 기대보다 낮은 직업 전망, 14.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15.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16. 정서적 지지, 17. 정보적 지지, 18. 물질적 지지, 19. 평가적 지지, 20. **사회적 지지**

### 3.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5>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beta$	t	$R^2$	$\Delta R^2$	F
진로 지향성	사회적지지	.269	.369	8.363***	.136	.136	69.941***
진로 지향성	사회적지지 , 진로장벽	.292 .038	.401 .100	8.652*** 2.166*	.145	.009	37.608***

\* $p < .05$ , \*\*\* $p < .001$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적 변인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지향성에 13.6%( $F=69.941$ ,  $p < .001$ )를 설명하였고, 진로장벽을 첨가하였을 때는 14.5%( $F=37.608$ ,  $p < .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

수준의 하위변인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6>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창의·독자성지향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beta$	t	$R^2$	$\Delta R^2$	F
창의·독 자성지향	사회적 지지	.190	.149	3.180**	.022	.022	10.011**

\*\* $p < .01$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창의·독자성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적 변인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장벽은 분산비율이 높아 변수에서 제외가 되어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 창의·독자성지향에 2.2%( $F=10.011$ ,  $p < .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가정조화지향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beta$	t	$R^2$	$\Delta R^2$	F
가정조화 지향	사회적 지지	.434	.275	6.024***	.076	.076	36.293***

\*\*\* $p < .001$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가정조화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적 변인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장벽은 분산비율이 높아 변수에서 제외가 되어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 가정조화지향에 7.6%( $F=36.293$ ,  $p<.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전문성지향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beta$	t	$R^2$	$\Delta R^2$	F
전문성 지향	사회적 지지	.371	.351	7.896***	.123	.123	62.342***

\*\*\* $p<.001$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전문성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적 변인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장벽은 분산비율이 높아 변수에서 제외가 되어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 전문성지향에 12.3%( $F=62.342$ ,  $p<.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직업중심자아실현지향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beta$	t	$R^2$	$\Delta R^2$	F
직업중심 자아실현 지향	사회적 지지	.312	.270	5.902***	.073	.073	34.828***

\*\*\* $p < .001$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직업중심자아실현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적 변인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장벽은 분산비율이 높아 변수에서 제외가 되어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 직업중심자아실현지향에 7.3% ( $F=34.828, p < .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안정성지향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beta$	t	$R^2$	$\Delta R^2$	F
안정성 지향	사회적 지지	.250	.206	4.436***	.043	.043	19.679***

\*\*\* $p < .001$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안정성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적 변인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장벽은

분산비율이 높아 변수에서 제외가 되어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 지향성의 하위요인 안정성지향에 4.3%( $F=19.679$ ,  $p<.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경제성지향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beta$	t	$R^2$	$\Delta R^2$	F
경제성 지향	진로장벽	.112	.171	3.648***	.029	.029	13.310***
경제성 지향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139 .165	.212 .129	4.319*** 2.639**	.044	.015	6.963**

\*\* $p<.01$ , \*\*\* $p<.001$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경제성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적 변인은 진로장벽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은 경제성 지향에 2.9%( $F=13.310$ ,  $p<.001$ )를 설명하였고, 사회적 지지를 첨가하였을 때는 4.4%( $F=6.963$ ,  $p<.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진로지향성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앞에 제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가.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지향성간의 관계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지향성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살펴보았다.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은 여자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일관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왔지만, 이 변인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진로지향성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경로로 진로발달에 연결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변인들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지지의 정서적 지지, 정보·대화적

지지, 경제적 지지, 경험적 지지 모두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과 정의 상관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정민화, 2014)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지향성 간에 정적상관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간에는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면 진로장벽은 낮게 느끼는 꼴 수 있으며, 진로장벽이 낮게 지각하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연구(박미경, 2008)에서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에 관하여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연구뿐만 아니라 송보라, 황정은과 이기학(2008), 안서영(2018)의 선행연구에서도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은 부적 영향으로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여자대학생들이 사회로 나감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낮게 느끼게 되면 진로장벽을 높게 느끼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여자대학생과의 진로상담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지향성과 진로장벽과의 관계에서는 각각 하위요인들간의 상관은 유의미한 상관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으로 전문성지향과 직업중심자아실현지향은 진로장벽과 부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지향과 진로장벽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대학생의 진로지향성 중 전문성지향과 직업중심자아실현지향은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지향으로 나타나 진로장벽을 느끼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경제성지향을 추구하는 경우 일에 대한 자기실현 추구보다는 현실을 고려하는 상황 속

에서 현실의 벽을 체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직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대하는 경우 진로장벽을 높게 느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하위요인의 결과는 앞선 진로장벽연구의 동향과 후속 연구과제(손은령, 2001)의 선행연구처럼 여성의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과 진로 결정 및 진로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암시하는 여러 진로 이론의 관점과는 다르다. 이는 Swanson과 Toker(1991a)의 주장처럼 어떤 사람에게서는 장벽의 지각이 진로 의사결정과정을 방해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보다 효과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촉매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진로지향성과 진로장벽 간의 관계가 단순히 부적, 정적 영향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매개하는 여러 매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손은령, 2001).

#### 나.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은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은 진로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7.608, p<.001$ ). 여자대학생은 부모의 지지가 진로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이상희, 2007; 정민화, 2014)의 결과처럼 사회적 지지가 진로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

타났다.

그러나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을 때의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진로장벽은 진로지향성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제거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지향성 중 경제지향성만이 사회적 지지보다 진로장벽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F=6.963, p<.05$ ).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자대학생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은 여자대학생이 직업을 생애 전반에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적 지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여자대학생의 진로의 방향을 잡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진로장벽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제적지향일 때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Lee(1994)의 선행연구처럼 진로장벽의 지각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를 단순한 선형관계로 이해할 수 없으며, 여러 다른 변인이 관련되어 있거나, 여성 집단 내부의 특성 차이가 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나타난다(손은령, 2001).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집단에 따라 개인별 특성에 따라 혹은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여자대학생들이 진로장벽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확인하였으나, 같은 진로장벽이라 하더라도 지각하는 것에 따라 강도와 지각이 달라질 수 있으며(손은령, 김계현, 2002), 아직 취업을 나가지 않은 상

황임에 따라 진로장벽을 느끼는 정도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중 기혼여성들의 진로 결정과 관련된 변인으로 진로장벽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김동숙, 2011)와 같이 여자대학생은 사회적으로 취업전선에서 느낄 수 있는 차별적인 사항들이 진로장벽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아직 취업을 앞두는 대상과는 거리가 있어서 진로장벽이 다소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차별을 체감하려면 차별이라고 인지하는 인식에 따라 체감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 직후 구직 중인 여자대학생의 설문을 수집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처럼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결과가 나타났으나 그 설명력이 다소 낮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 연구된 진로지향성에 대한 설문 내용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만든 설문으로 여자대학생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 존재하였다. 특히 가정조화 지향을 질문하는 내용은 설문을 작성하는 대상자에게 내용이 적합하지 않아 설문제대로 된 응답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자대학생들은 만약 이라는 가정을 두고 본 설문제응함에 따라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와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자대학생에 적합한 설문을 구성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문 결과 중 경제성지향의 경우 진로장벽을 높게 느낀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생계를 위한 목적이 강하면 진로장벽을 높게 느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최수정(2010)의 생애진로 유형

및 특성에서 분류된 직업-가족병행형(60.5%)처럼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점차 여성이 취업하려는 목적이 생계지원 또는 경력단절로 될수록 진로장벽이 커짐을 나타낸다. 이처럼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진로지향성의 분류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 또한 비슷한 유형과 차이 나는 유형이 분류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여자대학생 시기와 졸업 후 시기에 맞는 진로지향성의 분류가 필요하고 기혼여성의 진로지향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지향성의 각각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요인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장벽과 진로지향성의 각각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은 유의미한 상관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진로지향성은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부적상관과 정적상관이 일부분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지향과 직업중심자아실현지향은 진로장벽과 부적상관으로 나타나며, 경제성지향과 진로장벽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 중 전문성지향과 직업중심자아실현지향은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지향으로 나타남에 따라 진로장벽을 느끼는 정도가 낮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경제성지향을 추구하는 경우 진로장벽을 느끼는 현실의 벽을 체감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대하는 경우 진로장벽을 높게 느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은 대부분의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

과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느낄 수도 있으며,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변인이 진로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진로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37.608$ ,  $p<.001$ ). 그러나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을 때는 진로장벽은 진로지향성의 대부분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제거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지향성 중 경제지향성 만이 사회적 지지보다 진로장벽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6.963$ ,  $p<.05$ ). 이는 여자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 진로지향성의 하위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자대학생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은 여자대학생이 직업을 생애 전반에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지향성의 하위요인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적 지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여자대학생의 진로의 방향을 잡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진로장벽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제적지향일 때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대학생들의 진로지향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돕고 이후의 커리어 설계를 돕기 위해서 여자대학생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지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로 지원이 필요하다.

## 2. 제언

다음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특성을 묻는 질문들이 존재하였으나 개인별 특성의 통계는 빈도를 보는 용도 이외는 진행하지 않았다. 진로장벽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집단 내 차이 또는 개인차 문제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여 연구들이 부족함을 나타냈다(손은령, 2001). 이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어떤 영향 차이가 있을지 개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집단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재학 중인 학교형태'에 따른 비교, '진로취업 결정'에 따른 비교,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른 비교 등을 통하여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을 느끼는 차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자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지향성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처럼 가설에 대한 설명력이 낮은 이유는 여자대학생에게 맞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명력을 높이고 여자대학생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여자대학생의 진로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자대학생들의 학업 중의 상황과 졸업 예정, 졸업 이후 등 생애주기에 따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진로장벽은 같은 진로장벽이라 하더라도 지각하는 것에 따라 강도와 지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손은령, 김계현, 2002) 선행연구처럼 인식하는 것에 따라 다른 진로의 방향과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에 따라 시기에 따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은 (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숙 (2011).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 인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병숙 (2010), 직업상담심리학, 서울:시그마프레스.
- 김양희 (2012). 한국 여대생의 문화적 성향 잠재계층 분류와 진로관련변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양희, 유성경, 임지숙 (2011). 한국 여대생의 진로지향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중역할계획태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2(4), 161-185.
- 김언희 (2012). 경력단절 여성의 역할지향성에 따른 직업가치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완석, 이선이, 김선희 (2004). 여성 리더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커리어지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2), 1-23.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희 (2010). 진로역할지향성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과 타협과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6). 역할지향성과 타협상황에 따른 여성의 진로선택: 타

**협요인의 선호도 비교**,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희, 이장호 (1986). 사회적지지척도 제작을 위한 예비적 연구, **행동과학연구**, 8, 143-153.

김정희, 정일환, 정진철, 주동범, 이현민 (2016). 4년제 대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전담기구 현황 분석, **진로교육연구**, 29(4), 1-28.

김지은 (2017).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 예측모형 연구: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종운, 박성실 (2011). 대학생의 정서지능,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4), 209-229.

김현희 (2015).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희경 (2016). **대학생의 심리적·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매개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지은 (2016). **4년제 이공계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타협 유형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마경희, 김혜경 (2005). 대학생의 '직업의식'과 젠더, **페미니즘 연구**, (5), 189-237.

민세진 (2016). 대졸자 취업률 남녀 격차의 설명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13(2), 1-24.

- 박미경 (2008).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모형 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선희, 신동은, 최금진 (2010). 여성공학도 진로장벽에 관한 남녀 인식·비교, **공학교육연구**, 13(4), 77-86.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희순 (2012).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강숙 (2015). 전문대학 여대생의 전공선택과 진로탐색과정 및 요구조사, **발달지원연구**, 4(1), 55-71.
- 손보영, 윤민지, 박소연, 임제희 (2013).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 다중역할계획태도와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2), 1189-1208.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상담학연구**, 2(2), 251-262.
- 손은령 (2001). 진로 장벽연구의 동향과 후속 연구과제, **학생생활연구**, 28, 81-97.
- 손은령, 김계현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21-139.
- 송보라. 황정은, 이기학 (2008). 여대생의 지각된 진로장벽, 자존감,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664-665.
- 송종용 (1988).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

가 이중과제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현심, 홍혜영 (2010). 대학상담 :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  
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안서영 (2018).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윤정 (2014). 대학생의 역할지향성과 양성평등의식, 일희망 관계 분  
석, 청소년학연구, 21(10), 167-193.

오은경 (2003). 사회적 지지와 의사결정 유형 진로 성숙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성은 (2017). 대학생 취업지원프로그램 성공 요인 연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보림 (2017). 여대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태도  
성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이원숙 (1992). 사회적 망, 사회적 지지와 임상적 개입의 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은교 (2016).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지 (2010). 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돈, 권태희, 홍광표 (2014).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직업 분석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동북아경제연구**, 26(4), 91-115.
- 이상희 (2007).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75-392.
- 이상희 (2009).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0(3), 1539-1553.
-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분 (2013). **취업준비 기혼여성의 진로지향성 척도 개발**,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분 (2016). 여대생의 진로지향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9(2), 49-68.
- 이종원 (2014).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수경, 류숙희 (2016).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노력에 관한 일 연구: 영국의 이공계분야 여성의 유입과 유지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7(3), 395-413.
- 정민화 (2014).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영 (2014). 전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사회적 기술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3, 7-25.

- 정지은 (2013).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 (2016).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7(3), 53-68.
- 최수정 (2010). **기혼여성의 경력패턴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옥현 (2006).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 김계현 (2009). 진로상담: 여성 진로 상담 관점에서 본 다중역할(일-가족)균형의 구성개념 및 측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찰, **상담학연구**, 10(1), 365-384.
- 통계청 (2017) **2017년 7월 고용동향**.
- 통계청 (2016)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하문선 (2014). 여자고등학생의 여성성역할, 여성성역할갈등과 부모진로지지, 의사결정의존성 및 진로결정 간 관계, **직업교육연구**, 33(2), 59-84.
- 한수현 (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 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보연 (2010). **개념도 방법을 통한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봉렬 (1995). **경력지향과 기대감충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주희 (2016). **청년실업의 인과구조적 분석과 정책 지렛대 탐색**, 숙

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mquist, E. M., & Angrist, S. S. (1970). Career salience and atypicality of occupational choice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2*, 242-249.
- Altman, S. L., & Grossman, F. K. (1977). Women's career plans and maternal employmen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 365-376.
- Amatea, E. S., Cross, E. G., Clark, J. E., & Bobby, C. L. (1986). Assessing the work and family role expectations of career-oriented men and women: The Life Role Salience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31-838.
- Bardwick, J. M. (1971). *Psychology of women*. NY: Harper & Row.
- Battle, A., & Wigfield, A. (2003). College women's value orientations toward family, career, and graduate schoo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56-75.
- Betz, N. E. (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17*, 136-144.
- Betz, N. E. (1994). Basic issues and concepts in career counseling for women.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for women*(pp. 237-261). Hillsdale, NJ: Erlbaum.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San Diego, CA, US:Academic Press, Inc.

- Booth, C. L., Rubin, K. H., & Rose-krasnor, L. (1998). Perceptions of Emotional Support from Mother and Friend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Social-Emotional Adaptation and Preschool Attachment Security. *Child Development, 69*(2), 427-442.
- Brown, M. T., Eisenberg, A. I., & Sawilowsky, S. S. (1997). Traditionality and the discriminating effect of expectations of occupational success and occupational values for women within math-oriented field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418-431.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1.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3*(2), 99-125.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Y: McGraw-Hill.
- Delong, T. J. (1982). Reexamining the career anchor model. *Personnel, 59*(3), 50-61.
- Dong, X., & Simon, M. A. (2010). Gender variations in the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risk of elder mistreatment in a Chinese community population.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9*(6),

720-739.

- Douglas, D., Suurmeijer, T., Briancon, S., Moum, T., Kroal, B., Bjelle, A., & Heuvel, W. V. D. (1996). An International Study on Measuring Social Support Interactions and Satisfaction. *Social Science Med*, 43(9), 1389-1397.
- Dubois, D. L., Felner, R. D., Meares, H., & Krier, M. (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511-522.
- Dukstein, R. D., & O'Brien, K. M. (1994). *The contribution of multiple role self-efficacy and gender role attitudes to women's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manuscript.
- Farmaer, H. S. (1976). What inhibits achievement and career motivation in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12-14.
- Fitzgerald, L. F., & Betz, N. E. (1994). *Career development in cultural context: The role of gender, race, class and sexual orientation*. In M.L. Savickas and R.W. Lent(Eds.), *Converg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ories: Implications for science and practice*(pp.103-117).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Fitzgerald, L. F., Fassinger, R. E., & Betz, N. E. (1995).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

- B. Walsh & S. H.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67–110).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 Ginzberg, E. (195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30*(7), 491~494.
- Ginzberg, E. (1966).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New York: McGraw–Hill.
- Goldsen, R. K., Rosenberg, M., Williams, R. M., & Suchman, E. A. (1960). *What college students think*. Princeton, NJ: Van Nostrand–Reinhold.
- Harmon, L. W. (1977). *Career counseling for women*. In E. Rawlings & D. Carter(Eds.), *Psychotherapy for Women*(pp. 81–106). Springfield, IL: Thomas.
- Heller, K., & Swindle, R. W. (1983). Social network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stress. *Preventive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7–103*.
- Henderson, A. S. (1984).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social suppor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19*(2), 49–52.
- Hill. C. T. (1998). A Longitudinal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Reasoned Act To Women's Career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9), 761–778.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Hoyt, D. P., & Kennedy, C. E. (1958). Interest and personality correlates of career motivated and homaking-motivated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 44-49.
-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3*, 253-286.
- Krause, N. (1986). Social support, stress, and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1*(4), 512-519.
- Lee, J. I.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lf-efficacy expectations and career decision status at the college level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Levinson, D. (2006).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김애순,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서울:이화여자대학교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evitt, M. J., Guacci-Franco, N., & Leitt, J. L. (1994). Social support and achievement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 multi-cultural stud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15*(2), 207-222.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4), 239-248.
- Marshall, S. J., & Wijting, J. P. (1980). Relationships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x role identity to clooeege women's career orient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99-311.
- Masih, L. K. (1967). Career Sliency and Its Relation to Certain Needs, Interests, and Job Valu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45(7), 653-658.
- Matthew, E. & Tiedeman, D. V. (1964). Attitudes toward career and marriage and development of lifestyle in young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 374-383.
- Matui. T., Tautzki. T., & Onglacto. M. L. (1999). Some Motivational Bases for Work and Home Orientation among Japanese College Women: A rewards Costs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114-126.
- McWhirter, E. H. (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140.
- McWhirter, E. H., Torres, D., & Rasheed, S. (1998). Assessing Barriers to Women's Career Adjust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4), 449-479.
- Nieva, V. F., & Gutek, B. A. (1981). *Woman and work: A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Praeger.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model of the

-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 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 Linn, S. G.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16-329.
- Oliver, L. W. (1974). Achievement and affiliation motivation in career-oriented and homemaking-oriented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 275-281.
- O'leary, V. E. (1974). Some attitudinal barriers to occupational aspirations in women. *Psychological Bulletin*, 81, 80-826.
- Quimby, J. L., (2002). *Career Orientation of Reentry Women: An Integrated Structural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Maryland.
- Rand, L. (1968). Masculinity or Femininity: Differentiating career-oriented and homemaking-oriented college freshman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5, 444-449.
- Ridgeway, C. L., & Jacobsen, C. K. (1979). The development of female role ideology: Impact of personal confidence during adolescence. *Youth and Society*, 10, 297-315.
- Russell, D. W., & Cutrona, C. E. (1990). *Type of social support and specific stress: Toward a theory of optimal matching*.
- Schein, E. H. (1978). *Career dynamics: Matching individual and*

- organizational needs. Reading, MA: Addison-Wesley.
- Schwarzer, R., Knoll, N., & Rieckmann, N. (2004). Social support. *Health Psychology, 158-182.*
- Sobol, M. G. (1963). *Commitment to work*. In F. L. Nye & L. W. Hoffman (Eds.), *The employed mother in America*(pp. 40-63). Chicago: Rand McNally.
- Stickel, S. A., & Bonett, R. M. (1991). Gender differences in career self-efficacy: Combining a career with home and famil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2, 297-301.*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9, 185-190.*
- Swanson, J. L. (1994).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Short Form)*.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J. L., & Tokar, D. M. (1991a).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Swanson, J. L., & Tokar, D. M. (1991b).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344-361.*
- Swanson, J. L., & Daniels, K. K. (1995).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J. L., & W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2.
- Tinsley, D. J., & Faunce, P. S. (1978). Vocational interests of career and homemaker oriented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3*, 327-337.
- Tinsley, D. FJ., & Faunce, P. S. (1980). Enabling, facilitating, and precipitating factors associated with women's career orient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7*, 183-194.
- Tyler, L. E. (1964). The antecedents of two varieties of vocational interest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0*, 177-227.
- Vroom, V. H. (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Wiley.
- Wall, J., Covell, K., & Macintyre, P. D. (1999). Implications of social supports for adolescents' education and career aspiration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2), 63-71.
- Walsh, W. B., & Osipow, S. H. (1994).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2nd ed) (pp. 67-109).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78-89*.
- Wolfe, L. K., & Betz, N. E. (1981). Traditionality of choice and

sex-role identification as moderators of the congruence of occupational choice in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43-55.



## 부록

###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고 귀중한 시간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여대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진로장벽이 진로지향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본 연구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자료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석사과정 정윤정

지도교수 강승희 드림

### ◎ 진로지향성 척도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직업목표가 곧 내 삶의 목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의 고용 안정성을 중요하게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직업을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떤 다른 영역보다 일에서 만족을 얻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고용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직업을 갖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직업을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창업을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직업을 갖는 것은 내 삶의 중요한 목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맡게 될 업무는 형식이 정해져 있고, 안정적인 일하기를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경제적 보상 정도에 따라 취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가진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	①	②	③	④	⑤

	한 경력을 추구한다.					
13	개인적인 목표추구의 기회가 제한되더라도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일을 통해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어떤 직업이든 그 직장의 안정성을 우선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 보상을 우선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전문적 역량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남편이나 자녀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생애목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1	남편이나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4	일하는데 있어 기존의 방식보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 ◎ 진로장벽 척도

여러분이 평소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당신의 진로 목표실현을 어느 정도 방해할(가로막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생각되는 번호에 √ 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전혀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1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방해할 것이다 7	⑦
1	직장생활을 잘 해 나갈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의 가사책임과 직장에서의 직무책임을 조화롭게 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직장에서 나를 이끌어 줄 만한 선배나 동문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국내 경제상황의 변화 때문에 내 진로를 계획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 직업 선택을 주변사람들(부모, 친구, 친지 등)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직업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의 신체적 조건이나 외모로 인해 취업시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결혼 및 출산계획과 진로 계획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 자신에 대해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내가 원하는 직업이 나의 성에는 적합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자신감을 잃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직장에서 필요한 능력에 비해 내가 너무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어떻게 취직해야 할지 방법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특별한 인맥이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성공할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상사가 나의 성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어린 자녀를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직장생활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내 성격 특성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직장생활을 유지할 만한 체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직업의 종류와 그 전망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가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내 직장생활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내가 원하는 직업의 보수가 낮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는 위계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높아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자녀로 인해 내 직장생활이 방해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특정 직업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내가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내 직업선택을 애인이나 배우자가 지지해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예: 의사표현력, 지도력, 의사 결정력 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내가 원하는 직장의 보수가 너무 낮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자녀로 인해 직장에서 어렵게 얻은 기반을 유지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직장생활을 잘 해 나갈만한 끈기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나의 진로 목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진로 계획이 계속 바뀐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직장에서 승진해 나가는 방법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배우자(애인)의 직장이 바뀌어서 내 직장이나 직무를 바꾸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연령 때문에 취업이나 직무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7	직장에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8	직장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격증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9	남성위주의 조직사회에서 생활해 나가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0	내가 기혼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1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는 승진 기회가 적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	나의 모든 역할들(부모, 배우자, 직업인 등)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3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 승진,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4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5	배우자가 내 진로 목표보다 자녀양육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6	내 성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에 직장에서 처신하기가 곤란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7	직장분위기(상사 및 직장동료)가 여성의 능력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8	직장생활을 잘 해나가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9	내 연고지나 학벌로 인해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0	내가 원하는 직업과 내 대학 전공이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1	전통적으로 내 성에 어울리지 않다고 인식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3	부모 역할과 직장인 역할을 함께 수행해 나가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4	직장상사나 동료로부터 성적으로 희롱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5	직무분담에 있어서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6	내가 원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7	남성들이 주로 하는 분야의 직업(예: 토목 기사)을 원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장생활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사회적 지지 척도

여러분이 평소에 주위사람(가족, 친구, 교수 및 선후배 등)에게 느끼는 생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 대한 느낌의 정도로 생각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의 주위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고 보살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기꺼이 마련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주위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주위 사람들은) 모두 존경할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주위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믿고 의지할	①	②	③	④	⑤

	수 있는 사람들이다.					
11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바람직한 행동 을 했을 때에는 아끼지 않고 칭찬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주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항 상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 에 처했을 때에는 내가 그 상황을 잘 극 복할 수 있도록 늘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 시 간을 내주고 함께 상의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주위 사람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염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일들 에 관해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결정을 내리 지 못하고 망설일 때,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 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물 건이 있을 때는 언제나 내가 그것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 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주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해 주고 나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내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 ◎ 일반적 사항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문항들은 단지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1. 연령 : 만 \_\_\_\_ 세
2. 재학 중인 학교 형태 : ① 전문대학 ② 4년제 대학
3.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전공 :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③ 경상계열  
④ 의학 계열 ⑤ 예체능 계열
5. 학과명 : \_\_\_\_\_ 학과
6. 현재 앞으로의 진로나 취업이 결정되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7. 귀하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  
① 나는 독신이다. ② 하지 않는 편이 낫다. ③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④ 하는 편이 낫다. ⑤ 반드시 할 것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 연구가 값진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